

성가소비녀회 (聖家小婢女會)
LITTLE SERVANTS OF THE HOLY FAMILY
www.holyfamily.or.kr

2016년 12월 25일
제5호

강생의 길을 따라

Along to the way of Incarnation



02721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로9길 46
46, Gireum-ro 9-gil, Seongbuk-gu, Seoul, Korea
Tel 02)940-5800
Fax 02)943-1603

www.holyfamily.or.kr



선교사로 떠난다는 것은
중요하고도 또한 근본적으로 신앙적인 일입니다.
선교사는 강한 인간이어야 하고,
성교회의 제단 앞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일하며,
고통 받고 기도하며,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봉헌하는 데에는 휴식이란 없습니다.
사랑이신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사랑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설립자 신부 서한집 1집 13쪽)

- | | | |
|----|----------------------------|--------------|
| 04 | 선교사는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통한 하느님의 도구 | 총장 차 클레멘스 수녀 |
| 07 | 선교 지역 소개 : 아르헨티나 | 편집부 |
| 14 | '꿈과 희망의 어린이 도서관'을 열다 | 오 클라우디아 수녀 |
| 20 | 그들 세상 속으로 | 이 영해예수 수녀 |
| 25 | 인간이 되신 하느님 | 김 마리젼마 수녀 |
| 28 | 다시 찾은 볼리비아 | 이 체칠리아 수녀 |
| 32 | 길에서 만난 성모님 | 이 폴 수녀 |
| 36 |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 안 사비엘 수녀 |
| 42 | 고단한 삶에 지친 친구들... | 민 다미안 수녀 |
| 46 | 길모퉁이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면 | 이 나타나엘 수녀 |
| 49 | 후원 | |
| 58 | 해외 선교 지역 | |

2016년 제5호

「강생의 길을 따라」 선교지는 성가소비녀회 설립일에 연간 1회 발행하며,
모든 이들과 함께 선교 체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발행처 성가소비녀회 02721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로9길 46

발행인 차진숙 클레멘스 수녀

발행일 2016년 12월 25일

홈페이지 www.holyfamily.or.kr

표지사진 중국 양가산 중화성모 성지순례 중에 만난 어깨에 양을 맨 소년

선교사는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통한 하느님의 도구

총장 차 클레멘스 수녀

오늘도 선교지에서 땀 흘리며 하느님의 도구로 살아가는 수녀님들께 주님의 축복을 빕니다.

선교사들은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삶을 투신하여 그리스도의 생애를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와 가난한 이들에게 시선을 두는 것은 진정한 선교사의 양성이며, 시대에 따른 새로운 부르심에 계속 응답하면서 '나를 양성시키는 것'이 선교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은 그 변화를 이끌어야 할 우리의 시선이 각자 보고 싶은 곳만 보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와 일치하고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으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압받는 이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올바르게 겸손하게 열린 시선과 자세를 지닌다면 변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포기한다면 그 어떤 것도 변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선교사의 사명은 장소적인 의미보다는 선교사로서의 사명감으로 파견되는 것입니다. 내가 머물고 있는 현지인들과 같은 시선과 마음으로 하느님을 찾고, 그들과 같은 언어로 기도하고 함께 사는 것이 선교사에게는 중요한 소명입니다. 강생의 영성을 사는 수녀님들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가난하게 아무 것도 지닌 것 없이 알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탄생하신 곳의 사람들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셨고, 같은 음식을 드셨으며, 같은 옷을 입으시고 같이 일하며 생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파견하실 때 아무 것도 지니지 말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돈주머니도 식량 자루도 여벌옷도 가지고 가지 말고 어디를 가든지 그 집에 머물며 그 곳에서 주는 음식을 먹고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선교사로서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는 선교지에서 매일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상황들에 대한 신학적 성찰입니다. 상황과 사건을 복음을 기준으로 읽는 것입니다. 오늘날, 특히 가난한 나라들에서는 경제적, 정치적인 힘이 소수의 사람에 의해 행사되고 독점될 경우 불의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불의한 상황에서 항상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우리의 선교사명의 비전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억압받는 이들의 관점에서 대안의 생활방식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 대안은 생명의 새롭고 창조적인 차원을 발견하고 존중하는 것, 공동체 삶과 초월적인 것에 대한 자각입니다.

예수님의 기쁜 소식은 새로운 공동체에 관한 비전으로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들에 대한 정의와 해방을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죄인들, 세리들과 친구가 되셨고 사회적 억압으로 고통 받는 이들을 치유하고 온전하게 회복시키셨습니다. 가난과 온유함, 평화와 정의, 용서와 화해를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하느님의 사랑과 생명을 나누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정의와 평화, 창조 보전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생명에 대한 신학적 성찰을 하며 실천하는 선교사가 되어야겠습니다. 상호존중과 공동협력, 그리고 끊임없는 대화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가져와야 합니다. 선교사의 중요한 식별 기준이 되는 것은 나의 의식, 나의 내면 깊은 곳에 선교사로서의 내적 기쁨이 있는지 또는 없는지 하는 것입니다.

수녀님들이 선교지에서 살아가는 삶의 역사는 우리 설립자의 선교역사이자 우리의 선교역사입니다.



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고 생명을 살리는 선교사로 우리가 어디 있는지 그곳은 우리의 선교지이며, 그곳에서 수녀님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수녀님들의 얼굴은 주님을 생각하기에 기쁨이 넘쳐흘러야 하고, 복음의 기쁨이 발산되는 복음의 기쁨의 증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선교사로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조건 없이 가난한 이들을 사랑하셨던 설립자의 용기와 신앙의 모범입니다.

설립자께서 자주 말씀하셨듯이 공동체 구성원들의 형제애의 자연스런 열매는 이웃에게로 사도적 활동으로 번져가고 전염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먼저 사랑이 자리해야 하고 그 다음이 사도적 활동입니다. 하느님 안에 있는 공동체는 사랑과 상호 수용의 관계를 이루며 이를 통해서 우리는 나눔, 선물, 사랑, 공동체의 삶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통하여 진정한 인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교 공동체는 관계의 상호성을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건설되는 공동체이어야 하고 하느님 나라의 표지가 되어야 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이웃을 특히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경계에 있는 공동체로 모든 이들을 위하고 받아들이며 함께 동반하는 모두에게 열려있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선교지의 다양한 문화와 사고, 차이를 수용하면서 수녀님들의 마음을 넓히고 기도와 배려, 공동체적 식별과 공동책임이 일상화되기를 바랍니다. 매순간 쇠신되는 선교의 삶, 창조적인 선교의 삶을 살고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머무는 것이 선교영성입니다.

아마도 수녀님들께서는 선교지에서 많은 어려움들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용기를 잃지 않고, 오히려 선교사로서의 소명에 충실하게 확고하게 발을 내딛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수녀님들의 선교 삶의 역사적 과정에 성모님께서 수녀님들의 발걸음을 돌보아 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상황과 시기에 놓여있을 때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끝으로 수녀님들과 성 신부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도구가 더 이상 하느님께서 마음대로 쓸 수 있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대상과 일치할지는 몰라도 하느님과 일치하지는 못합니다. 수도자에게 본질적인 것은 대상과 일치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일치되는 것이어야 합니다.”(설립자 신부 강론 말씀 중에서)



아르헨티나 Argentina



공식 명칭 : 아르헨티나 공화국
 위치 : 남미대륙 남동부
 수도 : 부에노스아이레스
 인구 : 43,431,886명(2015)
 언어 : 스페인어
 종교 : 가톨릭(92%)
 정체·의회형태 : 연방공화제, 양원제
 기후 : 아열대성 기후, 온대성 기후, 한대성 기후



01 라보끼의 집

아르헨티나는 남아메리카 대륙 남부에 자리 잡고 있으며, 23개의 주와 자치시 1개로 구성된 연방 공화국이다. 면적이 우리나라의 36배, 남아메리카에서는 브라질에 이어 두 번째로 넓고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큰 나라이며 수도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이다. 그 말이 주는 의미가 ‘좋은 공기’라고 할 만큼 수도권 안에서만 150개의 공원이 있다. 나라가 크다보니까 그 경관과 기후가 다양하여 나라 안에는 17개의 국립공원이 있는데 그중에는 풍부한 야생 동식물을 보유하고 있는 곳도 많다. 그 가운데 하나는 영화 ‘미션’ 촬영 장소인 이과수 폭포로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와 함께 세 나라가 공유하고 있어 그 크기나 정관이 미국의 나이아가라를 훨씬 능가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가 은(銀)을 뜻할 만큼 황금을 찾아나선 사람들로 붐볐던 곳이었다.

한때 세계 5대 부강 국에 들기도 했지만 다른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을 포함하여 2002년 말까지 금융 및 사회경제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러나 환율의 평가절하 정책으로 산업이 부흥하여 외채도 갚고 강력한 소득 증진 정책과 공공사업 투자를 추진했다. 그리하여 아르헨티나는 경제위기에서 벗어나 경제 성장을 계속하게 되고 G20 회원국이 되었다.



02 주교좌 성당

탱고와 목축으로 유명하며 교육과 문화 수준은 남아메리카에서 최고를 자랑한다. 따라서 박물관, 미술관, 극장 등의 문화 수준과 대학을 비롯한 교육 시설은 상당히 충실하다. 다만 문화는 이 나라의 가장 오래된 재담가운데 “멕시코인들은 아즈텍의 후손이고, 페루인들은 잉카의 후손이지만 우리는 배의 후손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16~7세기 유럽의 스페인, 영국, 포르투갈, 이태리, 프랑스, 독일, 폴란드, 러시아에서 온 정착민들로 이루어졌으며 남아메리카 국가 중에서 가장 유럽에 가까운 문화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도 남아메리카에서 유럽 계통의 백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다. 그래서 때때로 백인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자만심이나 우월감 등이 비치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낙천적이며 쾌활한 성향을 가지고 있고 외지인에 대해서도 친절하고 적극적이다.

땅도 넓고 볼 곳도 많은 이 나라의 유명한 곳으로 스페인어보다 이태리어가 잘 통하는 지역으로 이태리 정착민들이 모여 사는 선창가 라보카를 들 수 있다. 이곳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보카 축구팀의 본거지로써 그들의 경기장이 있고 난폭하리만큼 색채가 강한 까미니포라고 불리는 특이한



03 프란치스코 교황이 세례 받은 성요셉 성당

거리가 있는데, 주택과 상점들이 온통 원색과 파스텔 색채의 무지개로 칠해져있고, 이곳의 예술가들이 표현해 놓은 휘황한 벽화들과 야외 조각품들을 위한 배경물로 딱 차 있는 곳이다. 또 빠뜨려서는 안 될 이 나라의 대표적인 음식은 아사도 혹은 빠리샤라고 불리는 숯불 바베큐 위에서 소금만 넣은 육우의 모든 것을 구운 것으로 그중 갈비와 내장에 갖가지 양념을 넣어 만든 초리사가 인기가 많다.

우리 한민족 교민들의 아르헨티나 진출에 대해서 알아보면, 1965년 최초의 농업 이민단 13세대가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하여 농장 정착을 하였으며 1971년 정부의 이민 장려 정책에 따라 대거 유입되어 남아메리카에서 한국계가 가장 많이 사는 나라가 되었다. 1984년 파라과이, 볼리비아 등지에서 재이민 교포가 급증하면서 1985년 한-아간 한국이민 송출 및 접수절차에 관한 의정서 체결로 투자이민이 허용되었다. 1995년 아르헨티나 한국 학교(한국 과정 6년제)를 개교하면서 1999년에 아르헨티나 한국 학교(아르헨티나 과정 7년제)를 개교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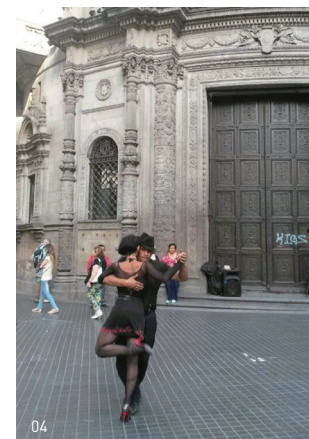
거주 지역은 플로레스, 아베자네다, 온세 등 3개 지역에 밀집되어있고 1980년대 말 약 4만 명까지 증가하다가 장기간 계속된 주재국 경제불황으로 상당수가 한국, 미국, 멕시코, 브라질 등으로 이주하여 1만 5천명 선까지 줄었으나 2015년 현재 약 3만 명으로 추산한다. 우리 동포들은 대부분 의류업과 관련 있는 업종에 종사하고 대체로 중산층 이상의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학력인정을 받는 한국 학교, 병원, 한인 골프장 등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이민역사 50년이 되면서 동포들의 높은 교육열로 1.5세대 내지는 2세대들이 현지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약 100여 명이 전문인(회계사, 변호사, 의사, 치과의사)으로 활동하면서 현지 주류 사회에 진출하고 있다.

이런 역사와 문화, 환경을 지닌 아르헨티나에 우리 수도회가 파견된 곳은 현재 4개의 분원으로 아르헨티나 한인성당, 알바레스 시립병원, 차꼬 아비아떼라이 공소, 에바뻬론 도립병원에서 각각 소임하고 있습니다. 각 분원이 파견된 경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르헨티나 한인 성당

당시 교포사목 담당 박정일 주교의 요청으로 1986년 11월, 당시 총원장이었던故 이 레오날드 수녀가 현지를 방문하고 본당의 상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신자수 3천명이상, 단체수도 20개가 넘게 있었고, 이민사회의 어려움을 안고



04 부에노스아이레스 거리에서 탱고 추는 사람들
05 오페라 극장을 서점으로





06 대표 음식 아사도



있는 현실을 보고 수녀가 필요한 곳이라고 판단하여 1987년에 파견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성가소 비녀회의 해외 선교의 문을 처음으로 열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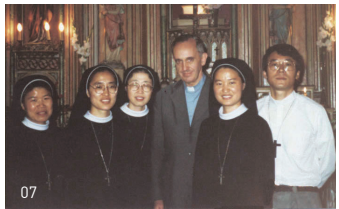
알바레스 시립병원

아르헨티나 플로레스 교구 호르헤 베르골리오 주교(현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름으로 당시 원목 사제였던 문한림 신부(현 주교)가 우리 수도회에 파견을 요청하였습니다. 알바레스 시립병원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무료병원이므로 우리 수도회의 영성에 따라 살 수 있고, 아르헨티나 부에 노스아이레스 한인본당에 한 개의 분원이 있던 상황이라 분원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1993년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알바레스 병원은 올해 116년 되는 역사를 가진 시립병원입니다. 유아병동을 비롯하여 300병상이며 페루, 칠레, 볼리비아 등의 주변국에서 무료진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차코 아비아 페라이 공소

산로케 교구 사르토리 주교가 교구 내에 수녀원이 비어 있는 공소가 있으니 오라고 초대하였고,



07 알바레스 병원 선교 1993-현 프란치스코 교황과 함께



08 문한림 신부(현 주교)와 소비녀들



09 에바페론 병원 성당



10 성소자 모임



11 아르헨티나 지역 JPIC 연수

그 다음 해故 이 레오날드 총원장 수녀가 현지를 방문하여본 결과 지역사회가 가난한 환경으로 수녀들의 손길이 필요함을 느끼고 1997년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에바페론 도립병원

산마르틴 교구장 기제르모 주교가 문한림 유배날 보좌주교를 통하여 무료병원인 에바페론 도립 병원에 수녀들을 파견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 병원도 알바레스 병원과 마찬가지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무료병원이므로 우리 수도회 영성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여 2014년 수녀들을 파견 하였습니다.

짧게는 3년에서 3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아르헨티나에서의 선교는 수녀님들의 땀방울과 발자국들이 모여서 우리 수도회 해외선교 역사의 한 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톨릭교의 세계관이 아르헨티나 국민들의 정신세계에 점철되어있는 보편적인 현상 속에서 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도전 의식과 함께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고, 가난함과 가난한 사람들이 필요로 할 때가 바로 우리가 서 있을 자리라는 설립자 신부님의 정신에 따라 예수님의 발자취가 이곳에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걸어갈 것입니다. 언제나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12 아르헨티나 한인성당 설립 45주년 장기 자랑

13 알바레스 병원 성지주일 행렬

‘꿈과 희망의 어린이 도서관’을 열다

아르헨티나 차꼬 아비아 테라이
오 클라우디아 수녀



차꼬는 크기가 다른 두개의 부채꼴 모양으로 이루어진 지형이다. 동쪽은 습하고 홍수가 범람하며 서쪽은 질산칼륨 지면으로 건조하다. 아비아 테라이 마을은 서쪽에 위치해있다. 1917년에 ‘위치스’라는 원주민(인디오)을 차꼬에 정착시켰는데 19세기 말엽에 목재산업이 들어오면서 숲의 거대한 부분들을 전멸시켰다고 한다. ‘숲’이라는 뜻을 지닌 차꼬는 지금은 어디를 가나 잡목만이 우거져 있을 뿐이다. 우리 마을은 1921년에 입주하여 95주년 기념을 맞이하였다.

차꼬는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가난하며 특히 아비아 테라이는 더 가난한 마을에 속하고, 기후적으로도 비가 잘 내리지 않는 건조한 지역이라 많은 문제들이 총체적으로 산재해있다. 캄뵤 마을을 방문하다 보면 고질적인 문제와 맞닥뜨리게 되는데 가난의 대물림과 교육의 부재이다. 분명 이곳 사람들도 더 나은 삶을 바라겠지만 특별히 기대할 수없는 현실의 한

계를 절감하게 된다. 현실의 무게에 고민하던 가운데 “어린이 도서관을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멈추게 되었다. 우선 사전 조사를 위해 초등학교를 방문했더니 도서관이라는 명목 하에 명패만 걸려있었다. 마을 도서관의 상황도 비슷하였다. 구비되어 있는 책들은 낡았고 도서관이라기보다는 아이들의 숙제를 도와주는 ‘학교의 보조’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도서관을 계획하다

마을에 제대로 된 도서관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장애인학교 교사와 일반 교사 2명에게 도서관 운영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조언까지 해 주었다. 이들의 호응에 힘입어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의 아이들과 함께 책 읽는 시간을 가졌다. 아이들에게 책장에 꽂혀있는 책들을 꺼내 주었더니 앞을 다투면서 한권씩 가지고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우등생인 알렉은 두께가 얇기는 했지만 무려 11권의 책을 읽었다. 아이들의 반응에 놀라웠고 도서관 설립에 대한 사랑이 비치는 듯했다. 이 계획을 준비하면서 또한 내 마음 안에 작은 파문이 일렁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 아이들과 오랜 기간 함께 지내면서 그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싶다는 생각에 머물자 더욱 사랑스럽게 느껴지고 기쁨과 행복한 감정 속에서 이렇게 정이 들어가는 것, 진정한 선교사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도서관 일에 착수하다

도서관에 비치할 책을 마련하는 일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사는 몇몇 뜻있는 분들이 많은 책을 기부하였고, 현 책방에서 좋은 책들을 저렴하게 구입하기도 하였다. 기부된 책들은 동화책, 역사, 과학, 위인전, 백과사전, 잡지 등 다양하였으며 오랫동안 이곳에서 지낸 자매와 함께 아이들에게 필요한 책을 선별하였다. 우리는 차꼬로 돌아와 1월부터 2개월에 걸쳐 선별된 책을 일일이 비닐로 싸는 작업을 하면서 무더운 여름날을 지냈다. 이 과정을 마친 후 다음 단계인 분류 작업을 위해 도서관 사서, 현직 교사 3명과 몇몇 대학생들에게 협조를 요청하자 기꺼이 도와주었다. 그들이 더 신바람 나게 작업을 해주었기에 이 일이 얼마나 보람된 일인가는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몸으로 표출되고 있었다. 또한 함께했던 현직 교사들을 주축으로 도서관을 더욱 발전시키자는 취지아래 '도서관 협력체제 운영

위원회'를 조직했고 2016년 3월 14일 공식 첫 모임을 가졌다.

첫 회의는 지루하면서도(?) 흥미를 끌었다. 다른 길로 빠지려는가 싶다가도 주제로 돌아오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나라의 관습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시간들이었다. 도서관의 목적을 이끌어내고 개관식에 대한 계획까지 세우게 되었다. 도서관의 공간이 작아서 밝은 색상의 그림과 글씨로 실내를 장식하였는데 나의 정성이 들어간 그림과 글씨는 초대장과 기념품에도 사용하게 되어 마음이 뿌듯하였다. 회의는 언어가 수월한 세영알렉시오 수녀가 진행하게 되었는데 현지인들과 한 가족이 되어 주체적으로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에 기쁨을 느꼈고, 선교사는 이처럼 현지인들과 함께 연대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날 첫 모임만으로도 큰 기쁨이었으며 이 기쁨이 '어린이 도서관'이라는 것에 더욱 감사한 마음이었다. 다음으로 도서관 이름을 무엇으로 할지 고민하게 되었고, 제시된 많은 이름 가운데 '꿈과 희망'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우리가 도서관을 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꿈과 희망 때문이다. 꿈과 희망이 현실이 되는 프로젝트의 하나로 '꿈과 희망의 어린이 도서관'은 그 첫 관문이 되는 것이다.

도서관 개관을 맞으며

도서관 협력자들과 몇 차례 공식 회의를 한 후 개관식을 갖게 되었다. 우선 마을 방송을 통해

개관소식을 알리고 마을의 기관장들과 교사,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수녀님들을 초대하였다. 개관식 전후로 우기가 계속되어 당일 아침까지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다. 우리 마을은 비가 오면 신작로가 패이고 질척거려 길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학교와 일터에도 가지 않는 상황이라 이렇게 비가 계속오니 불안한 가운데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였다. 주변에 풍선을 달고 환영 글씨도 붙이고 아기자기하게 무대 배경을 장식하였다. 계속해서 비가 올 것을 예상하여 도서관 앞에 작은 차양까지 준비하였다. 오후 6시 30분 개관시간이 되었는데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이곳 사람들은 좋은 날씨에도 늦게 오는 습관이 있는데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에는 더욱이 ...

사회자의 환영인사로 개관식이 시작되고, 운영위 대표의 인사말에 이어 세영알렉시오 수녀의 설립취지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사람들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다. 우리와 마을 사람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인 것이다. 식이 진행되는 중에 어느덧 비는 그쳤고 상쾌한 밤공기 속에서 희망의 분위기는 이어져갔다. 진부했던 우리 마을에 분명 '어린이 도서관'은 역동적인 선물이라고 확신한다.

개관식 이후

개관 이튿날도 계속 비가 내려 수녀원 앞에는 초등학교는 역시 수업이 없었다. 그런데 도서관 일지를 보니 32명이나 이용하였다. 정말 희망찬 소식이었고, 이 공간에서 꿈을 키워갈



아이들을 떠올리며 흐뭇한 순간이었다. 최근에는 도서관 마니아들이 생겨나고 있다. 네 살인 이사야는 오전에 유치원 갔다가 오후에는 엄마 손을 잡고 어금없이 나타난다. 또한 5학년인 벨렌은 글을 읽을 줄 모르면서도 매일 방문하여 그림만 보고 간다. 이처럼 꾸준히 도서관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어느 날은 유치원에서 견학을 나오는 날인데 마치 도서관이 잔치집 같았다. 작은 공간에 서로 북적대면서 열심히 책속에 빠져드는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

6월 15일은 '책의 날'이다. 초등학교에서 우리 도서관을 방문하였다. 선생님들의 도서관 이용 설명과 함께 책에 대한 소개를 듣고 각자가 원하는 책을 입도록 하였다. 그리고 국어사전에서 단어 빨리 찾기, 짧은 동화를 읽고 독후감 말하기 등의 게임을 준비하였는데 선생님들이 흥미있게 이끌어 아이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책읽기를 마친 뒤, 왕추페틴 하나씩을 선물했는데 너무도 좋아하였다. 이 모든 것들은 '도서관 협력 운영위'에서 기획한 일인데 이런 작은 행사를 통하여 아이들이 책을 가까이하고, 그들을 조금씩 알아간다는 것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7월 11일은 우리 마을이 입주한지 95주년이 되었으며 아르헨티나 독립 200주년을 기념하

는 큰 행사가 마을에서 있었다. 이날 차꼬 주에서 '어린이 도서관'에 깃발을 증정했다. 아직 상을 받기엔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은데... 이제 도서관은 명실 공히 공식 기관으로 인정받은 것 같아 뿌듯했다. 좋은 책 한권이 사고의 변화를 가져올 때 생각은 곧 말이 되고, 행동을 바뀌게 하고,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 희망한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 교육이 필수라면 책은 이를 뒷받침하기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구이다. 희망은 먼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마을에서 시작될 것이다.

끝으로 시인이 낭송했던 한 부분을 소개한다.

“..... ‘돈 빠파레온께서는 책을 많이 읽는 자는 여행을 많이 하는 것과 같다. 자가용도 아니고 트럭도 아니다. 어디를 가든 차표도 없고 가방도 없이 상상의 세계를 간다.’ 끝이 보이는 땅보다 한계 없는 책들을 날아다니면서 도서관과 학교는 너의 세계다. 책 읽지 않는 너의 삶은 불편함이 말이 아닐 것이다...”

아비아 테라이에 선교사로 파견된 우리는 꿈과 희망이 현실이 되는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해 갈 것이며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희망을 꿈꾸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새로운 힘을 주시는 주님께 의탁하며 또 하루를 시작한다.

01 차꼬 주에서 '어린이 도서관'에 상으로 깃발 증정
02 아르헨티나 독립 200주년 기념행사

그들 세상 속으로

아르헨티나 에바페론 병원
이 영해예수 수녀

1996년부터 2004년 2월까지 알바레스 병원과 차꼬 양로원에서의 시간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씩 되살아난 지 벌써 일 년이 지났습니다. 그때와 다른 것이 있다면 2014년에 우리 수도회가 위탁받은 에바페론 도립병원이라는 장소입니다. 그전의 시간들을 아쉬워하며 내려놓았던 불씨를 다시 피우리라 다짐했건만 모든 것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느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곳에서의 생활은 오전에 병원에서 일하고, 오후에는 언어 공부를 합니다. 스페인어를 안 한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토요일마다 가던 것을 주3회 비자에 갑니다. 그런데 이곳은 마약 소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혼자서 마을을 돌아다니는 것은 엄두도 못 낼 지역입니다. 그래서 교리교사 난시와 약속을 한 후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1시간



01 마리사 자매

02 비자 거리

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고 전화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마침 토요일 방문을 부탁했던 마리사와 연락이 되어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마리사의 집에 가서 기도와 차도 마시면서 그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유방암 수술을 했으며 몇 년 전에 장애아 아들을 사고로 잃고 그로 인한 우울증으로 지금까지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연입니다. 마리사는 9세인 딸 루밀리아를 학교에서 데리고 와야 하기 때문에 학교 가는 길을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학교장과 다른 교사들도 소개 받고, 마을 학부모들과도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리사의 도움을 받아 교우 집을 필두로 가정 방문을 하게 되었지만 언어 소통의 불편으로 스스로의 한계를 느끼며 다시금 언어의 시급함을 실감하게 됩니다. 마리사는 네 살 된 손녀딸 소피아도 돌보고 있는데 저와는 별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마리사가 저를 버스정류장까지 배려다주어야 하는데 아이만 집에 두고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 TV보면서 놀고 있는 소피아를 강제로 데리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저의 존재를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방문을 포기할 수도 없기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러저러한 적응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탈도 나고 감기로 인하여 비자 방문도 할 수가 없었는데 병원에서 허락한 휴가기간 동안 쉬었더니 몸을 추스를 수 있었습니다.

몸은 다시 회복되었으나 스트레스 받을 것을 생각하니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다. 어차피 한번은 넘어야 할 고비이기에 아침 식사를 마치고 마리사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다시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혹시

나 하는 마음에 병원 근무를 마치고 전화를 하였더니 마침내 마리스와 통화가 되었습니다.

지금 경당에 루칸 성모님을 모시고 있으며, 선교사들이 와 있으니 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곳에 가기 꺼려했던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마리스와 만나 경당에 가니 2명의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오후 두 차례 루칸 성모님을 모시고 집집마다 순례하며 기도하고 저녁에는 경당에 모여 함께 묵주기도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어졌는데 벌써 한 달 남짓되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들이 돌아간 후에도 파라과이 성모

03 에바페론 병원

03



님 축일에 9일기도로 가정 순례가 계속 이어졌고 이때부터 계속해서 오후에는 그들과 함께 2개월 동안 주5회 순례하였으며 이 방문을 통하여 마을사람들과 가까워지게 되었고, 굳이 마리스가 동행하지 않아도 혼자서 마을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독신으로 형제와 함께 살며 월제어 생활을 하는 라파엘과 만나고 있었는데 조금 떨어진 곳에서 마약을 피우고 있는 젊은 남성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라파엘은 “돈이 생기면 저렇게 마약을 한다”며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들과 눈이 마주치자 두려운 마음에 얼른 눈길을 피하였습니다. 라파엘과 헤어져 걸어가고 있는데 마약하고 있던 사람 중에 ‘후안씨또’ 라며 자신을 소개하는데 마치 술에 취한 것 같이 비틀비틀하며 포옹하려는 자세를 취하자 손을 내밀어 악수로 대신하였습니다. 나이를 물으니 26세이며, 자살하려고 7~8차례 손목에 자해하여 생긴 상처를 보여주었습니다. 아직 나이가 젊었으니 새 출발하면 된다고 설득하였습니다. “생명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한번뿐인 인생인데 왜 포기하려고 하느냐”고 했더니 자신은 이미 늦었고 희망이 없다고 합니다. 나중에 마리스로부터 알게 된 사실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후 퇴원하면 다시 마약을 하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 성체조배를 하며 후안씨또와 마약하던 사람들을 주님께 봉헌하며 그들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이제 여러 이유로 주 1회 비자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공소 가는 길에 마약중독자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후안씨또와 함께 있는 것을 여러 번 보아서 낯이 익었습니다. 혼자 앉아있기에 이름을 물으니 ‘마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뒤로 매주 그곳에 병 하나 들고 앉아 있는 그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마일에게 운베소(볼에 인사하는 것)를 하고 옆에 다가가 앉았습니다. 함께 이야기 하던 중에 마일이 눈을 똑바로 뜨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얼마나 강한지 그 눈빛을 피하며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공소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눈빛이 생각나며 “그렇게 강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 어째서 마약 중독자가 되었을까?” 의문이 생기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기도를 하였습니다. 다음주에도 마일은 그 자리에 있었고, 반갑게 인사를 하고 옆에 앉으니 그전과 같은 강한 눈빛으로 쳐다보기에 이번에는 피하지 않고 “마일, 우리



04 루간 성모님 가정 순례

는 친구가 아니냐?”고 말했더니 별
떡 일어나서 사라지는가 싶더니 모
통이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고개만
빼꼼히 내밀고 있기에 손을 흔들어
주었더니 아예 숨어버렸습니다. 다
음 토요일에도 그를 만나게 되었는
데 강한 눈빛이 아닌 입으로만 웃는
것이 조금 어색해 보였습니다. 1년
동안 마일을 여러 번 보았지만 처음
으로 웃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
다. 또 마일이 늘 가지고 있던 병을
달라고 하여 맛을 보았더니 ‘코카콜라’
이었습니다. 그전에 아무리 달라고
해도 손에서 병을 놓지 않았는데...
이렇게 마일은 저에 대한 경계를 풀
기 시작했습니다. “오! 하느님, 감사
합니다.”

다음에 다시 마일을 만났는데 이제
는 정말로 활짝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이렇게 웃을 줄 아는 사람이었
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들의
세상 속으로 조금씩 들어가면서 함께 한다는 생각과 친구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제
겨우 혼자서 마을을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들이 마약의 구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그러기위해서 주님의 강렬한 손길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며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손, 당신의 발, 당신의 눈, 당신의 귀, 당신의 입, 당신의 마음, 당신의 도구이
니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써주십시오!”

인간이 되신 하느님

아르헨티나 알바레스 병원
김 마리젼마 수녀

오히려 당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종의 신분을 취하
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인
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
까지, 아니,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
니다.(필리 2,7-8)



01 알바레스 병원 환자 이발

가난과 생의 끝에서 잠깐 머물다 하느님계로 돌아가는 곳, 알바레스 병원엔 예수님의 일생을 보
여주는 현장입니다. 가난도 모자라 암이나 당뇨병, 에이즈, 마약, 각종 풍토병 등 한국에서는 쉽
게 접하지 못하는 질병이라는 손님들 받아들이 수 밖에 없는 환자들의 모습에서 스스로는 먹지
도 움직이지도 못하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변국가에서 온 가난한 이방인들, 퇴원 후
에도 머리 돌 곳조차 없는 노숙자들입니다.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들을 통해서는 병자들을 고쳐주
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어 예수님계로 데려왔던 선한 이
들의 모습은 봉사자들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곳입니다. 지구 반대편이라는 거리만큼 문화적 충격
또한 만만치 않고, 한마디 한마디 말을 배우는 아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딪히면서 이 세상

에 내리시어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와 인간의 언어를
익히고, 인간의 문화 안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우리보
다 먼저 선교사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며, 선교사들의
롤 모델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아침기도 후 성당 문을 열 때 쯤 아직 새벽 어둠이 채
가지지 않은 시각임에도 불구하고 병원 성당 주변을
두 바퀴 정도 둘러선 사람들이 진료 날짜를 예약하기



02 알바레스 병원 입구

위해 접수 창구가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번호표가 따로 발급되지 않기에 꼼짝없이 차례가 될 때까지 자리를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환자들을 방문하다 보면 아르헨티나 외에 볼리비아, 페루, 파라과이 등 주변 국적임을 알게 됩니다. 이들은 2~3일 걸려 버스를 타고 진료를 받으러 이곳에 옵니다.

세계 10대 강국의 하나였던 아르헨티나는 에비타라 불리던 에바페론 시절의 과도한 복지 정책과 군부독재 정권을 거치면서 국가부도 사태까지 가게 되었는데 최근에도 그와 맞먹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실임에도 이 나라에 대해 합리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법이 있는데 ‘아르헨티나에 있는 모든 사람은 국적에 상관없이 교육과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법으로 인하여 아르헨티나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혜택들이 주변 국가로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국적에 상관없이 가난하고 병든 모든 이들이 알바레스 병원과 같은 무료병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 열려있는 희망이 아닐까 싶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국가 자체가 부도의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변함없이 약자들, 특히 질병의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입원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간호사, 의사 등 직원들과 봉사자들에게 환자의 국적이나 종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이들은 제 삶을 밝혀 주는 스승이요, 현장에서 만나는 예수입니다. 저희가

방문하는 환자들을 통해 가진 것이 없어 가볍게 떠날 수 있는, 그러나 마음에는 무엇보다 풍요로움을 안고 떠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미사 후 이들을 방문하고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빨래, 식사를 도와줍니다. 90% 이상이 가톨릭 신자(성당에 착실히 나가는 경우는 드물지만 모두 가톨릭 신자라고 말합니



03

03 환자들에 관하여 의사에게 문의

다)이기에 수녀들의 방문을 좋아합니다. 때로는 유대교와 개신교, 여호와의 증인들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병원 환자 중에 몸집이 작고 까만 피부인 15세 소녀 에리카는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며칠 후 병세가 호전되어 일반 병실로 올라왔습니다. 그녀에게는 18개월 된 아기가 있는데 13세에 엄마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지요. 어린 나이에 일찍이 어른의 삶을 사는 에리카를 보며 전에 차꼬에서 지내는 동안 저에게 수없이 던졌던 질문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한 어머니에게 4명의 자녀가 있고, 그 아버지가 각각 다른 경우들을 흔하게 보면서 “무엇이 진짜일까? 지금까지 알고 있던 도덕적, 윤리적인 것들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리고 마리아노는 파라과이 출신으로 올해 초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의 집은 병원에서 버스로 1시간 30분 거리에 있었지만 가족들은 매일매일 면회를 옵니다. 병세가 호전되어 퇴원하더니 6개월이 지난 후 양상한 모습으로 다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임종이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처음 입원했을 때 매일같이 방문하던 가족들은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는 외로움과 죽음의 고통 앞에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그를 보면서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유난히 추운 어느 날 코가 시려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으면서 문득 머리로는 가난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우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이면 두터운 이불을 덮을 수 있고, 언제든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과 환자들을 이해한다고 할 수 있겠는지요? 그 답은 바로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모습대로 이 세상에 내려오신 강생의 삶입니다. 이것은 절박한 곳에서 부르짖고 있는 사람들 안에 몸과 마음이 온전히 내려 갈 때 그들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가난과 질병의 고통이 단지 머릿속에만 머물고 있다면 하느님이 아닌 내가 주도권을 갖고 알팍한 동정심만으로 그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닌 상대방이 변화되어야 하는 존재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 앞에 마음으로부터 함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연민을 지니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단지 육체의 고통만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고통 앞에 중립이 없다는 교황님의 말씀처럼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주고, 그들의 시선으로 바라봄으로써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이론과 실체가 조금씩 겹쳐지는 삶이 바로 예수님 제자로, 그리고 머나먼 타국 땅에서의 선교사가 가야 할 길임을 다짐해봅니다.



다시 찾은 볼리비아

볼리비아 비루비루 탁아소
이 체칠리아 수녀

종신서약 후 다시 볼리비아 선교 소임을 받았습니다. 유
기서약 3년 동안 선교했던 시간이 그림기도하고 웬지 책
임감이라는 단어가 가슴 속에 박혀있음을 절절히 느끼며
한 치의 망설임없이 다시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나
라는 동일하지만 탁아소 소임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인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하는 긴장 속에서도 설렘의 작은
조각들이 꿈틀거리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지식, 시설에 대한 무경험, 기타 등등 준비
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선교를 통한 경험 속에서
하느님을 발견하고 그 뜨거운 기운의 여운으로 달려온 이
생활도 어느덧 1년 2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비루비루 탁아소는 2세부터 유치원 들어가기 전 4세
의 아이들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볼리비아 교



육과정은 우리나라의 초등교육에 해당되는 primaria(프리마리아)가 6년이고 중·고등교육인 secundaria(세군다리아)가 6년 과정으로 총 교육과정은 우리나라와 같으나 구분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 탁아소도 교육 기관이다 보니 학교에서 행사하는 것과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어버이날 행사, 스승의 날 행사, 어린이날 행사... 등등. 스승과 제자, 부모와 자녀는 서로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훈훈함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노동절 행사 중 하나로 '어른이 되면 하고 싶은 일'을 각자 분장해서 오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직 어린 친구들이라 어려운 숙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이들이 분장해 온 모습을 보면서 자녀에게 바라는 부모의 꿈이 반영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간호사, 의사, 변호

사, 군인, 요리사, 모델, 일일 노동자 등을 나타내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들 속에서 앙헬라의 분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실 앙헬라는 태어날 때부터 뇌에 이상이 생겨 왼쪽이 부자유스러운 상태이며 걸음걸이도 불편한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으로부터 가정교육을 잘 받아서 그런지 남의 도움을 청하기 전에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평상시에도 대견하다고 생각한 친구였습니다. 그는 청소부 분장으로 앞치마와 한손에는 빗자루를, 한손에는 쓰레받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마 앙헬라도 엄마가 분장하는 것을 도와주었을 텐데 왜 청소부 분장을 했는지 굳이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앙헬라의 모습이 떠오르곤 하였습니다. 왜 청소부일까? 장애아니까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업은 포기한 것일까? 하지만 청소하는 일도 힘들 텐데... 아니면 이곳에서는 많은 엄마들이 청소부를 하니까? 정말로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생각해서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만족하며 살면 된다고 생각한 걸까? 여러 가지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하였습니다. 어쩔 저 역시 직업엔 귀천이 없다고 하면서 현실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앙헬라 엄마한테 물어보면 쉽게 나올 답을 몇 날 며칠을 두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아이의 꿈이던지? 엄마의 바람이던지 상관없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앙헬라가 이 일을 할 때 당당하고, 최선을 다

하며, 남의 시선에 굴하지 않고 행복해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기를 또한 바랄뿐입니다.

이상과 현실이 엄연히 다르게 구분되고 존재하는 것이 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중시되기보다는 무시하고 차별하는 세상 속에서 좌절하거나 동화되지 않고 자신의 상황과 능력에 맞는 일을 하면서 주위의 시선에 구애받지 않는 그러면서 만족해하는 그 당당함과 따뜻함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회에서 소외받는 가난한 이들이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세상! 그런 세상을 위해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강생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실현하시고자 했던 하느님 나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꿈은 꾸는 것이며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앙헬라가 꿈꾸는 그런 세상이 이 땅에 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느님나라의 도래를 위해 탁아소의 어린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옷자락 움켜쥐고 활기찬 모습으로 달려갑시다.

늑대가 새끼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지내리라. 송아지가 새끼 사자와 더불어 살찌고 어린아이가 그들을 물고 다니리라.(이사야 11,6)

길에서 만난 성모님

볼리비아 비루비루 탁아소
이 폴 수녀

볼리비아에는 산홀리안, 뿌에스토, 그리고 비루 비루 탁아소 이렇게 세 곳의 분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면적의 거의 5배나 되기에 같은 나라에 살고 있지만 소비녀들이 함께 모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3개월에 한 번 정도 JPIC 모임과 친교를 위해 만남의 시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총회 연수를 하기 위해 산홀리안 분원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연수를 마치고 각자의 소임지로 돌아가기 위해 정류장에서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도착한 버스 기사님으로부터 블록queo(데모)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데모 때문에 길을 차단해서 산타크루스로 가려면 다른 길로 돌아가야 하고 평상시 2시간이면 되는 것을 3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25Bs(볼리비아노) 지불했던 버스비도 40Bs나 요구하였습니다. 저희는 4명이 타고 가야하기에 차비에 대한 부담으로 기사님과 흥정하였으나 결국 전부 지불하고 버스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간이 오후 3시 30분





이었습니다.

아스팔트길이 아닌 비포장도로를 따라 달리는데 불안불안! 비가 오지 않아 마른땅을 지나칠 때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먼지로 세수를 하고, 배(우리가 타고 오던 차도 함께: 이곳에서는 흔한 풍경입니다)로 강을 건너 다시 차를 타고 달리는데 아찔! 타이어에 못이 박혀 바람이 빠져 버렸습니다. 근심으로 가득찬 우리와는 달리 기사님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타이어를 교체하고, 길을 잃은 다른 차량까지 도와주기위해 선두에서 인도하는 모습을 보며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로 불안한 마음은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마음 졸이면서 달리고 있었는데 또다시 블록게오로 인해 우리가 가던 방향을 돌려 다른 길을 찾아가는데 교체한 타이어가 또 터져버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차창 밖을 내다보니 인적도 드문 것 같고, 사탕수수 밭만이 끝없이 펼쳐있었습니다. 우리들의 눈이 모두 기사님에게로 향하자 그분은 아주 차분하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차를 운전하더니 마을이 보이는 곳에 도착해서야 차를 세웠습니다.

차에서 내려 타이어를 보니 정말로 아찔했습니다. “이런 상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니 ...”

하지만 마을에는 타이어 파는 곳이 없었기에 아까 못이 박힌 타이어로 교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날은 어두워지고 이리다가는 집에도 못갈 것 같아 마음만 동동거리고 있었는데 마침 저편에서 오는 근사한 차가 있었으나 그냥 지나쳐버리고, 그 뒤로 오던 차가 멈추어 섰는데 운전자의 얼굴을 보니 일본 여성이었습니다. 저희 수녀들의 모습을 보더니 차에서 내려 기사님에게 타이어에 바람 넣는 기계를 가지고 있으니 뒤따라가면서 바람이 빠지면 그 때마다 도움을 주겠다고 하여 버스는 다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렵게 3번의 바람을 넣어가면서 비포장도로를 지나 아스팔트가 있는 시내 쪽으로 나오게 되었고 타이어 수리하는 곳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중간 중간 타이어에 바람을 넣기 위해 버스가 설 때마다 “에고! 미 우에비도 사노!(나의 달걀은 다친 데가 없다=안전하다).” 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차 때문에 덜컹거리는 상황에서 봉지에 담은 달걀의 상태를 확인하는 할머니의 환호(?) 소리였습니다. 할머니가 애지중지하며 달걀을 잘 안고 계신 덕분에 요동치는 상황에서도 달걀은 무사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 줄이고 있다가 할머니의 그 한마디에 한바탕 웃음을 터트리곤 하였습니다.

어느 곁에 비가 내리고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우리를 뒤따라오던 일본 여성 운전자에게 인사하려고 기다리고 있



었는데 우리가 안전하게 도착한 것을 확인하고는 그냥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무튼 고맙다는 인사를 못해 아쉬운 마음입니다. 할머니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면서 네 명의 수녀 덕분에 아무 일 없이 아주 즐겁게 도착했고, 하느님께 감사하다는 통화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온몸이 녹초가 되어 집에 도착하니 11시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사히 돌아올 수 있어서 정말로 다행이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되돌아보니 이 모든 게 성모님께서 도와주셨기에 가능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방문 축일이고, 어제의 일이 반추되며 성모님이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여정이 어제의 일과 함께 접목되며 목상이 되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넓은 지역을 구석구석 돌아볼 수 있었고, 가는 도중에 어려운 사람을 만나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처지가 되기도 하고, 서로 도와주며 기다려주고, 힘들지만 즐겁게 어려움을 이겨냈던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군중을 보시고 가엸은 마음이 드셨다(마태. 9,36)

캄보디아 시소폰
안 사비엘 수녀

캄보디아에 온지 만 2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리 짧지 않은 시간 안에서 희비곡
선들이 그려진 그래프를 보면서 어느새 훌쩍 지나버린 듯한 아쉬움이 몰려옵니다.
우리 공동체는 바탐방에 있지만 저는 언어를 공부하기 위해 시소폰에 있는 성 프란
치스코 하비에르 시소폰 성당에 머물고 있습니다. 시소폰은 캄보디아의 행정구역
20개 주 가운데 하나인 반테아이메안체에 속하는 주도입니다.

시소폰에 대해 설명하자면, 캄보디아 제2의 도시이고 바탐방과는 68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캄보디아는 프놈펜 교구, 바탐방 교구, 캄뽕참 교



01 에이즈 병동 환자 방문

02 시소폰 삼거리

구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인구는 10만 정도로 추산하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상업이나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토를 직접 소유하고 있어도 농업 방식이 발달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높아서 시골에 사는 아이들도 대부분 도시로 나와 교육을 받는 상황이고 이곳에도 4개의 대학교가 있으며 중·고등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개인 병원이 많은 편이고 국립병원이나 도립병원은 한 개 정도 있어서 많은 가난한 환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부터 저는 인근 에이즈 병동 환자들을 위한 음식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이곳 기숙사의 요리사가 음식을 담당하였는데 어떤 연유인지 본당 신부님이 요리사의 교체를 원하시어 한동안 중단되었습니다. 그 후 신부님은 장애인 부부와 함께 책임지고 맡아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집과 시소폰 성당과의 거리도 멀고, 이동 수단도 불편하고, 책임이 부여된다는 사실에 선뜻 내키지 않았습니다. 이런 제 마음을 눈치채기라도 한 듯 신부님은 “수녀는 병원에서 용(장애인 남편의 이름)부부를 만나서 나누어 주는 일만 함께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봉사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이동 수단입니다. 서민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가 거의 없고 ‘모토뚝’이나 ‘툭툭이’라고 불리는 오토바이를 이용하기에는 교통비가 너무 비싸고, 자전거를 이용하려니 더운 날씨가 걸리고 게다가 그

로 인한 사고가 많다는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서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작은 오토바이를 배우긴 했는데 한국 교구 신학생이 머물게 되면서 작은 오토바이는 신학생의 전유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여기서 8Km 정도 떨어진 예수회 학교에 매일 출·퇴근해야 하므로 가끔 필요한 저보다는 더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큰 오토바이를 배워보라는 신부님의 권유가 있었지만 망설임 속에 차일피일 미루게 되었습니다. 워낙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나라이기에 더욱더 엄두가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큰 오토바이 타는 법에 도전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균형 잡기도 어렵고, 만만치 않은 무게에 힘이 부치기도 하고, 아무튼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 드디어 혼자서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초보자로서 겪어야 할 두려움은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성당 내에서는 편안하게 탈 수 있지만 거리로 나간다는 것에 선뜻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주님께 용기를 청하는 기도를 한 후 오토바이를 타고 나갔습니다. 역시 우려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삼거리로 터리에서(신호등이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마주 오는 차와 부딪칠 뻔 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놀란 마음을 겨우 달래며 성당까지 오게 되었고, 하얗게 질린 얼굴로 신부님께 이 사실을 설명하니 다시 자전거로 바꾸라 하였습니다. 이런 일을 계기로 오토바이는 접어두고 자전거로 다니기로 하였습니다. 이 나라에는 무



슬림들이 많아서 그들의 두건과 수녀들의 머릿수건을 동일시하게 보는 경우가 있어 조금 불편하더라도 수도복을 입고 자전거를 탑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톨릭과 수도자에 대해 열심히 설명하였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초창기 문헌 중에 우리 수도회를 만드려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수녀들 매일 시장한 바퀴 씹는 것도 하느님을 보여주고 가르치는 것”이라는 성 신부님 말씀을 상기하면서 자전거에 몸을 맡기게 됩니다.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병원에 도착하면 먼저 에이즈 병동을 방문합니다. 이곳에는 12인실과 6인실 정도 되는 병실이 2개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에이즈 환자 수에 대한 공식적인 데이터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많은 수가 존재한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의 대부분이 가난하며 장애인, 수감자, 심지어 순박한 시골 할머니까지 입원하고 있습

니다. 놀라운 사실은(들으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에이즈 전염 경로가 2년 전 베트남 의사가 마을에 무료진료를 하던 중에 주사기를 교체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사용해서 마을 주민의 상당수가 에이즈 감염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도, 주민들의 의식도 한국과는 많이 다른 상황 속에서 의료 혜택의 기회도, 의료

의 질도 높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외국에서 온 봉사자들의 무료 진료를 이용해야하는 안타까운 현실의 문제로 인한 서글픈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병실에 들어서면서 앞을 못 보는 아주머니와 만나게 됩니다. 아직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대화의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지만 짐작하는데 그분은 태생 소경으로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세 명의 아이를 출산한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 늘 경계하며 살았건만 세 번 모두 다른 남자들의 아이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더 가슴 아픈 사실은 아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이의 목소리조차 들어본 적도 없고, 어디 사는지? 이름조차 모른다고 합니다. 아이를 낳자마자 남자들이 데리고 가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주머니의 아픈 사연을 듣고 조금이나마 그분의 슬픔을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다가서게 되고, 그분도 제 목소리를 들곤 반가워합니다.



03

03 장애인 용부부와 함께

그리고 아직 병원 운영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몰라 장기 입원중이라 생각했는데 갈 곳이 없어 그냥 병원에서 살고 있는 할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없이 늘 혼자였지만 누구보다도 밝고 명랑합니다. 가끔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라고 물어보면 “산책이라도 하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함께 동반해 줄 사람이 없고, 끼니도 우리가 만들어 드리지 않는 날은 소금을 반찬 삼아 식사를 하신다고 합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지만 가능한 한 할머니와 함께 산책할 시간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매일 만나는 환자나 주변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연민’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도와주는 데에 한계가 있기에 선뜻 다가가지 못합니다. 그들 생각에 외국 사람, 특히 한국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풍부하다고 생각한답니다. 사실 남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곳 사람들은 도움 받는 것에 익숙하지 아니면 형편이 어려워서인지 너무나 쉽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대로 다 해결해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이 미약해서 정부의 보조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끔 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본당 신부님께 말씀드리면 예수회 서비스 기관에서 도움을 주거나 본당 사회사업비에서 협조를 합니다.

며칠 전 방문한 곳은 4채(집이라야 양철지붕에 나무로 만든 단칸방 수준)의 집에서 87세 할아버지를 포함하여 10명 정도의 식구가 살고 있는데 할아버지의 임종을 앞두고 장례 치를 비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매일 이 가정의 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주는 관계로 방문하다가 알게 된 것입니다. 본당 신부님께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쌀 35Kg과 약간의 현금을 보조해 주어 전달해 드린 경우도 있습니다.

이곳에 살면서 안타까운 것은 천혜의 자연 환경으로 아름답고 사람들도 순박한 편인데 너무 가난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 편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어 그들의 굶주린 배를 해결해 주었다면 지금 이곳에서 그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야 하는지? 군중들을 연민의 마음으로 보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자전거의 페달을 밟습니다.

고단한 삶에 지친 친구들...

필리핀 빠라나케
민 다미안 수녀

다시 필리핀에 돌아 온지 5개월이 되었습니다. 배고프고 몸이 아파도 그냥 참고 있는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사랑스런 아이들은 골목마다, 집집마다 넘쳐나고 만나는 아이들은 마드레(수녀)만 보면 축복을 받으려고 앞을 다투며 달려옵니다.

먹을 게 없어 굶주리는 현실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아이들, 아픈 것도 내색하지 않고 참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런 아이들과 허기진 배를 달래기 위해 잠을 청하는 어른들이 저희들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하루에 한 끼만 제대로 먹어도 그렇게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앓을 텐데 힘없이 아이들이 죽어갑니다. 한 살 터울로 한 가정에 5~6명씩 있으니 한 끼 먹기도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도직 하는 곳은 공동묘지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밀려나 집단으로 모여 사는 공동체입니다. 각자가 여기저기서 나무 조각들을 주어가 만든 집들로 150세대가 어우러져 살고 있습니다. 우물과 수도 그리고 화장실도 없습니다. 배수 시설이 되지 않아 오물이 그대로 길에 널려있고, 비가 오면 그 더러운 물속에서 아이들과 어른들이 맨발로 살다보니 종기를 비롯한 각종 피부병, 알레르기, 무좀, 결핵 등 많은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경우 입, 코, 항문 등을 통해 회충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구충제를 먹이면 한 아이 한 테서 10마리 이상의 회충이 나오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다행히 종기와 피부병 등은 한국에서 가져온 연고 등으로 치료하면 빨리





좋아져서 감사한 마음이지요. 그러나 환경이 너무 비위생적이라 모기, 개미 등의 해충에 물려 상처투성이가 되고 계속되던 상처는 자꾸 깊어 2차 감염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인 환경이 개선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의 힘만으로 역부족임을 실감하지만 조금이나마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악한 상태에서도 어른들과 아이들은 언제 보아도 행복한 미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기가 새로 태어나면 하느님께서 주셨으니 감사하고, 생을 마감하는 순간에도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생각하며 초연하기만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환경이 주는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전부가 아님을 이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들은 ‘빠라나케’시에서 가장 열악한 곳인 Our Lady of Peace 지역과 Tramo3(트라모) 두 마을을 방문하면서 함께 지내고 있으며 선별된 장학생(60명 정도)을 주 4~5회 정도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상담하며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정 방문을 통해 감당 할 수 없는 환자들은 병원에 모시고 가서 무료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치료비를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굶고 있는 아이들, 부모가 마약 중독 등으로 방치한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너무 더러운 아이들은 씻겨주기도 합니다. 상태가 가벼운 환자들은 자체적으로 치료하거나 투약하고 설립자 신부님 말씀대로 가난한 가정을 방문하여 지나쳐버리기 쉽고 표시하지 않는 작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큰 길에서나 성당에서 그리고 차 안에서도 저희를 부르고 반기는 이들은 주위에서 멀리하는 남루한 옷차림으로 함께 생활하고 있는 마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복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 마을은 마약 중독자들이 많고 위험한 지역이니 주의하라고 하지만 저희와 가장 가까운 형제자매들이기에 누구보다 편하게 다가설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는 화장실과 상하수도 시설입니다. 40도를 오르내리는 날씨에 온 몸이 땀으로 얼룩져도 씻을 수가 없어서 땀띠와 햇볕 알레르기로 종기가 생기거나 피부병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희가 계속해야 할 일은 이들이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고통과 하느님께서 참으로 좋으신 분이며,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깨달아 희망을 잃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함께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일 미사와 기도하는 방법도 모르는 이들은 공동묘지에서 세상과 단절된 상태로 3대까지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태어나 그 안에서 결혼하고 무덤 밖의 사람들과는 전혀 소통하지 못

한 채 살고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와 단절하여 출생신고는 물론이고 세례도 받지 못했습니다. 한 나라의 국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찾아주고 또한 하느님의 자녀로 살기 위한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라씨아 수녀와 필로메나 수녀가 동분서주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신앙생활은 못하고 있지만 하느님의 섬리하심에 의탁하고 불평 없이 고통을 감수하는 이들을 하느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많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강생하시어 저희와 똑같은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살았던 것처럼 필리핀의 소비녀들도 열악한 환경과 고달픈 삶 안으로 내려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불편함을 받아들이면서 병자들을 고쳐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하느님 나라가 왔다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신 예수님의 삶을 저희도 계속 살아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수녀님들의 격려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곳 빠라나케 아이들과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길모퉁이에 서서 하늘을 바라다보면

미국 워싱턴 DC, JPIC 사무국
이 나타나엘 수녀



2015년 10월

어느 목요일 오전, 프란치스코 수도원으로 가는 길목, 성 글라라 관상회 수녀와 도미니칸 수사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 앞에서 멈춰 서고 말았다.
내가 마주하는 시간은 뜻하지 않던 길목에서 잠시 멈추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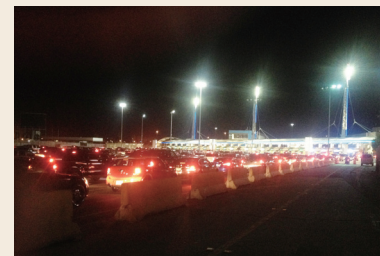
‘리틀 로마’라는 별칭을 가진 이 지역은 미국 가톨릭 대학교와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대성당을 중심으로 60여개의 가톨릭 관련 기관이 산재해 있다. 미국 주교회의(USCCB), 여자수도자장상협회(CMSWR), 성 요한 바오로 2세 성전, 오블라티 미국관구 본원, 카푸친, 도미니칸, 프란치스칸, 베네딕틴 등 수도회와 신학원, 양성소, 분원, 피정의 집, 예수 성심병원, 삼위일체 여자대학, 가톨릭 자선단체, NGO 등 가톨릭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2015년 12월

600여 명이 넘는 청중석에 유일하게 수도복을 입은 수녀로 참석한 이 특별했던 ‘평화를 위한 기도회’는 종교, 교육, 정치가 어떻게 이 사회를 ‘리드’해가고 ‘소통’해야 하는지를 응축해준 시간이었다.

‘극단 이슬람주의자의 총기 난사로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 당시 미국 사회의 큰 충격을 안겨주며, 정치권의 총기규제 및 이민자정책에 관한 날선 공방으로 국론이 분열되었던 시점에 조지타운 대학교(예수회 재단) 총장 주도로 ‘연대, 상호이해, 평화를 위한 종교간 기도회’가 열렸다. 가톨릭 추기경, 유대교 랍비, 개신교 목사, 성공회 주교, 이슬람교 이맘, 정교회 대주교, 바하이교 지도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이민자의 나라 미국의 힘인 다양성이 존중받고 화합하는 사회를 위해 가진 기도회였다. 천주교 신자인 미국 부통령 조 바이든이 예고 없이 등장하며 기도회를 더 뜨겁게 달구었다.



2016년 2월

새벽 3시,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국경을 통과하기 위해 긴 줄 무리에 섞여 있는 내내 긴장했다. 혼자였고, 이방인이었고, 소수자이었던... 그건 분명 경계인의 체험이었다. 그 안에서 느낀 이질감 속에서의 나의 가난은 충분하지 않았다.

오블라티 JPIC 사목지 체험의 일환으로 방문한 미국-멕시코 접경지대 티후아나에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날이었다. 동행했던 신부님은 미영주권자이므로 차를 계속 운전하며 통과했고, 나는 중간 도로에 내려 이방인(외국인)들이 하루벌이를 위해 끝도 없이 늘어선 줄에 합류하였다. 어둠 속에도 어둡고 지친 표정들이 역력하게 드러났다. 고단한 삶의 극치는 바로 너와 나를 가르는 이 경계선에서 도드라졌다. 바로 내 앞에서 국경 출입국 검사대에 걸려 두 명이 체포되어 가는 것을 목격했고, 나는 내 가방 속에 들어있던 사과를 반납해야만했다.



2016년 5월

Together We Achieve

오래 전, 영화 '미션'과 '늑대와 춤을'에서 막연하게 보아 넘겼던 '원주민'에 대한 인식을 바로 일깨워준 유엔국제회의의 첫 경험이었다.

콜럼버스 신대륙 발견의 최대 희생자들인 아메리카 원주민이 분포된 북중남미 지역 가톨릭 수도회 JPIC-NGO는 물론 오세아니아 지역 정의평화인권 담당 수도자들이 대거 참석한 '15회 유엔 원주민 회의'에서 '세상의 절박한 곳'의 또 다른 유형을 보게 되었다. 기후 변화와 광물광산 개발, 벌목업 등의 1차 피해자 또한 원주민들이며 거대자본과 결탁한 동조세력이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회의장에서 만난 어느 원주민이 수도복을 입은 나에게 "너는 어디서 온 원주민이냐?"고 묻는다.



2016년 8월

"죽을 때까지 이 곳에서 시위할 것"이라 했던 반핵 평화시위자의 소원이 이루어진 곳은 다름 아닌 백악관 앞 비닐천막. 1981년부터 35년간 이 천막을 지킨 꼬부랑 할머니 코니가 세상을 떠난 지 반년이 지났다.

세계정치를 대변하는 백악관은 미국의 인기 관광지일 뿐만 아니라 각종 시위와 집회지의 단골명소이다. 그동안 참여한 2015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세계연대 집회, 2016 성금요일 사회경제생태 정의를 위한 십자가의 길 그리고 히로시마 원폭투하 71주년 참회 평화기도회까지 모두 백악관 앞에서 열렸다. 지금은 주인이 바뀐 누더기 비닐천막의 역사를 뒤늦게 알고 속연해지기까지 하였다. 덕수궁 앞 농성 천막 장을 밀어내고 화단을 급조하고, 일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를 위해 온갖 수단을 강구하는 권력들과 단순 비교할 순 없지만 인간의 존엄을 위해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지켜주는 사회 - 함께 '연대'할 때 충분히 가능하다.

후원



선교 수녀들이여!

하느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참으로 중요하고 요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사명도 실로 중요합니다.

선교 수녀들이여!

더욱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로 가십시오.

가서 가난하게 살고, 가난한 이들과 함께 살며,

가난한 교회가 되십시오. (설립자 신부)

설립자 성 신부의 말씀에 따라 성가소비녀들은

국내에서는 물론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중국, 볼리비아,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에 선교사로 파견되어

가난한 교회가 되어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후원 계좌 국민은행 036101-04-030207 재)성가소비녀회

TEL. 02)940-5815, 5816

※ 입금 후 반드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을 생각해서 재생용지로 인쇄합니다.

해외 선교 지역

중국 형주 상록촌

434030 中国 湖北省 荆州市 荆州区 八岭山镇
八岭山麻风康复中心 李香兰修女 收

중국 분양

032203 中國 山西省 汾陽市
汾阳三皇庙巷 39号 天教堂

필리핀 빠라나케

3822-C Mabini Dongalo, Parañaque City
Metro Manila, Philippines

캄보디아 바탐방

Pet Yiey Chee Catholic Compound Rumchek 1 Village, Rattanak
Commune, Battambang District, PO Box 330, Battambang, Cambodia

볼리비아(뿌에스토, 산 홀리안, 비루비루 탁아소)

Las Pequeñas Siervas de la Sagrada Familia
Casilla 25, Santa Cruz. Bolivia

이탈리아 엠폴리

Parrocchia S. Jacopo ad Avane
Via della Motta 2 - 50053 Empoli(Firenze), Italia

아르헨티나 한인성당

Parroquia de los Santos Mártires Coreanos
Thorne 1261 1406 Capital Federal BS. AS. Argentina

아르헨티나 차코 아비아 페라이 공소

Capilla N.Sara del Rosario Casa de las hermanas
3706 Avia Terai Chaco, Argentina

아르헨티나 알바레스 병원

Aranguren 2701(Hosp. Alvarez)1406
Capital Federal BS. AS. Argentina

아르헨티나 예바 페론 병원

Capilla del Hospital Eva Peron Nuestra Senora de Lujan
Balbin (101) 3150
B1650 NBN San Martin
BS. AS. Argentina

베트남 빈증

7, đường lo so 2- khu TDC Phu Hoa,
Khu 7, Phường Phú Hòa,
thị xã Thủ Dầu Mot,
Tỉnh Bình Dương, Vietnam